

2013.08

Vol. 19

Webzine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GFEZ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2013.08

Vol. 19

Webzine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Gate of Asi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

급성장 하는 동북아 시장에 대응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을 육성하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 인프라,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 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선두 주자입니다.

## CONTENTS

### 03 MESSAGE

#### 메시지

·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

### 05 HOT ISSUE

#### 핫이슈

· 광양경제청, 전국 경자구역 성과평가 4년 연속 2위 달성  
· 제61회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 광양경제청, '광양만권 활성화' 반짝 아이디어 봇물  
·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단 꾸려 방미 투자유치활동 나서  
· 광양경제청, 투자유치 자문위원 활동 강화

### 08 INVEST IN GFEZ

#### GFEZ 지구소개 : 하동지구

· 광양만권의 조선, 제조, 주거, 업무, 관광·레저 등 복합산업기능

### 10 INTERVIEW

#### 인터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오익현 호남권지역본부장(GFEZ 투자유치 자문위원)

### 12 PHOTO NEWS

#### 포토뉴스

· GFEZ 주요 포토뉴스

### 14 VISIT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견학 예약신청서

##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



지난 2004년 3월 출범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희봉/이하 광양경제청)의 슬로건이다. 출범 9주년을 맞은 광양경제청은 그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지구별 개발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기업친화적 정책 시행 등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 이후 3년 연속 우수청으로 선정된 광양경제청은 그 동안 광양항 컨부두 및 동·서측 배후지, 해룡일반산업단 제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울촌 제Ⅱ산업단 및 신대배후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했으며,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부족한 산업단지 조기공급을 위해 울촌 제Ⅱ산업단, 황금·세풍산업단, 갈사만 조선산업단 등 6개 산업단 17.64km<sup>2</sup>의 동시 개발을 서두르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과 인력수급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용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광양경제청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138개 기업, 자본 122억\$를 유치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광양항 물동량이 최근 3년 연속 200만TEU 달성으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유망업종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외국기업 신규투자 실적이 주춤하고, 광양항 자체 물동량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 또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는 화양지구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희봉 청장은 "앞으로 성과는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한편, 권역내 지자체와 협력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중점 발굴·유치하여 성장의 부를 창조하는 '개발-투자-성과'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한다.

## 동북아 국제교역 거점으로 부상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를 2020년의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있는 광양경제청은 2020년까지 투자유치 250억\$(FDI 25억\$), 고용창출 24만명, 매출액 180조원(GDP 전국 15%), 물동량 연 1,200만TEU, 상주인구 12만명 달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차에 걸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순천~완주간·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전라선 KTX·경전선 복선화, 이순신대교 개통 등 광역교통망과 권역내 진입·간선도로 등 5개 지구 15.73km 순환 교통망을 구축해 접근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 지구별·지역별 체계적 특화전략 추진

광양경제청은 지구별·지역별 개발사업에 있어 체계적인 특화전략을 마련해 이를 적극 추진해 왔다. 광양항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거점 자립기반 구축이 목표인 광양지구, 포스코, 여수국가산단 등과 연계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생산기능을 수행할 울촌지구, 경제권과 도시생활권을 연계한 복합형 성장거점기능을 수행할 신덕지구, 남해안 거점관광지 및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화양지구, 글로벌 해양플랜트 '연구개발+교육+생산' 기능 클러스터로 조성될 하동지구 등 지구별 특화전략이 그것이다.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성과

광양경제청은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국내외 자본 122억\$ 및 138개 기업을 유치해 30,982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광양 물류산업, 울촌 첨단산업, 해룡 마그네슘기업, 화양 관광레저기업, 하동 해양플랜트 연구클러스터 조성 및 조선기자재 등 투자유치 환경변화에 따른 지구별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업종을 선정해 유치해 오고 있다.

## 입주기업 지원체제 구축

광양경제청은 기업하기 좋은 '굿-비즈니스'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기업사랑 자문단 운영, 17기 1도우미제 운영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해 공급하고, 지역 대학생 현장체험 학습, '찾아가는 건강돌보미제' 운영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외국인 정주시설 조성을 위해 전남 최초로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설립이 내년 상반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 발굴 및 유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 향후 계획

광양경제청은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첨단 물류거점 조성을 통해 광양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미래형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그리고 광양만권을 국내 최대 생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 및 스포츠 등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해 해양관광레저 허브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산단을 조기에 개발하고, 배후단지 및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촌 제Ⅱ산단과 세풍산단·해룡산단을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울촌 제Ⅱ산단을 정밀화학·에너지 분야, 세풍산단을 철강 연관산업 분야로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특화산업으로 확대 지정·육성하며, 갈사만 조선산업 단지내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집적화 종합단지를 구축하는 한편, 광양항을 농수산물 수출진진기지로 육성하는 등 광양항 물류 및 지식정보 융·복합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희봉 청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광양만권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희 봉

## 광양경제청, 전국 경자구역 성과평가 4년 연속 2위 달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청으로 선정되어 국비750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를 기하고 구역청간 경제체제 도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외자유치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 선·후발청 통합평가와 정량지표를 80%로 상향 조정하고 단위지구 평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광양경제청은 앞으로 지구별 개발사업의 가속화, 국내외 유망 강소기업 투자유치 실현, 기업 친화적 정책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개발-투자-성과'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지역경제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 광양만권 미래형 신소재 산업 및 하동 갈사만 해양플랜트 클러스터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희봉 청장은 '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부족한 사회간접시설과 수도권과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기업 투자환경이 가장 불리한 여건임에도 4년 연속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둬 우수청으로 입지를 다졌다'면서 '세계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투자시장에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지혜를 모아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양청은 성과평가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위해 하반기에 해외 선진지 비교연수 체험활동도 실시한다.

## 제61회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 세풍산단 PF조달에 따른 GFEZ 지원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다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제61회 조합회의 임시회가 7월 29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풍일반산업단지 PF조달에 따른 GFEZ 지원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고, GFEZ 현안사항인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관련 진행사항을 청취함으로써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및 향후 법적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코스트코 입점사항에 대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법 상 절차대로 이행하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지역상인 등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풍일반산업단지 PF조달에 따른 GFEZ 지원계획은 지난 2월 제57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나, 기관 및 참여사의 책임분양 범위를 재조정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변경 승인되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적기공급 하고자 2010년부터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 의결에 따라 산단 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을 안정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희봉 청장은 "이번 조합회의는 광양만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고 보고받는 자리였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광양만권의 개발을 가속화함은 물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광양경제청, '광양만권 활성화' 반짝 아이디어 봇물



### 2014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갖고, 47건 발굴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 9일 내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희봉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실현'과 '각종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 '실천적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47건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보고됐다.

특히 '미래소재산업 육성', '자동차·화학 융합클러스터 구축', '부품·소재산업유치' 등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은 물론 '주민 외국인

캠프 운영', '외국인 실용 정보제공 체계 마련' 등 입주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체감을 주는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됐다.

광양경제청은 이번에 발굴된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책들이 광양만권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올해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실시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청으로 선정되어, '광양만권 =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등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도 투자유치 20억불을 목표로, 올존제2산단, 황금산단, 세풍산단 등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단 꾸려 방미 투자유치활동 나서



### LA, 시카고 등지의 잠재투자기업 개별 방문 상담, 큰 호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일환으로 LA, 시카고 일원의 기업을 직접 방문·상담하여 현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이희봉 청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투자유치단은 사전에 투자유치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6.26~7.5(8박10일)일정으로 미국 LA와 시카고 등지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화양지구 활성화를 위해 샌디에고 주립대학, 씨월드리조트, 골프경영대학 등을 방문, 투자의를 타진했다.

또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 물류기업인 엑스퍼다이터와 선트란스 인터내셔널 등을 방문, 광양항을 환적항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시카고에 위치한 글로벌 상용차 제조업체인 나비스타, 산업용 밸브 제조회사인 위케사 베어링사, 산업용 펌프제조 업체인 하이드로 인코퍼레이션 등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고 이들로부터 광양만권 투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장시찰과 더불어 10월 4일부터 3일간 열리는 코리아 F1 그랑프리대회 성공을 위해 기업 대표자들을 초청했다. 이희봉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를 촉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미국지역 투자유치활동만이 아니라 유럽 및 대양주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청으로 선정돼 국비 7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우수청으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광양경제청, 투자유치 자문위원 활동 강화



### 2013년 7명 신규 위촉, 세계전역에 총 17명 활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미국, 호주, 대만, 중국, 일본 등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중 미국의 마케팅 인티그레이티드 기업의 스카트 전씨(Mr. Scott Chon) 등 한국 3명, 미국 2명, 호주 1명, 대만 1명 등 7명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총 17명의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이 전세계에서 광양만권 투자를 위한 기업발굴 활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금년 들어 5명의 자문위원들이 신대지구, 광양항 및 율촌산단을 방문, 투자환경을 시찰하였으며, 호주 및 일본의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오익현 본부장 등 국내 자문위원 9명이 부품소재산업 및 광에너지 연관기업 발굴 등을 위해 광양경제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케팅 인티그레이티드(Marketing Integrated)사는 LA 지역의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통하여 광양청에서 오는 6월 26일부터 추진하는 미국 IR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경제청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자문위원들을 초청, GFEZ 투자설명회 및 산업시찰을 개최하여 투자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청과 자문위원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잠재투자기업 발굴활동을 더욱 강화할 나날 예정이다.



## 광양만권의 조선, 제조, 주거, 업무, 관광·레저 등 복합산업기능 하동지구

GFEZ 5개 지구 중 하동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GFEZ로 지정된 이후, 하동군 금남면, 금성면 일원의 총면적 12.17km<sup>2</sup>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단지(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덕천에코시티)가 광양제철의 생산기능과 연관된 선박 관련 조선 산업과 제조, 주거, 업무, 관광·레저 등 복합산업기능을 담당할 단지로 조성된다.

| 구 분       | 사업기간        | 추진계획                           |
|-----------|-------------|--------------------------------|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 2008 ~ 2015 | 5.61km <sup>2</sup> , 15,970억원 |
| 대송산업단지    | 2009 ~ 2015 | 1.37km <sup>2</sup> , 2,383억원  |
| 두우레저단지    | 2012 ~ 2016 | 2.65km <sup>2</sup> , 5,023억원  |
| 덕천에코시티    | 2012 ~ 2016 | 2.54km <sup>2</sup> , 4,823억원  |

단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5.61km<sup>2</sup>로 GFEZ 개발에 따른 지역균형개발과 지역편중에 대한 완화역할을 기대하며, 광양항 주변 생산기능 연관산업인 조선소, 조선기자재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송산업단지도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하여 금속,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게 된다.

그리고 2개의 배후단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되는데, 덕천에코시티는 2.54km<sup>2</sup>로 갈사만 매립지 기능이 본격화되어 산업유치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들어서면 산업단지 지원기능인 주거, 상업, 업무지원 등 생활지원 시설을 위한 단지로 개발된다. 또한, 두우레저단지는 2.65km<sup>2</sup>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로 산업유치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접어들면 경제자유구역 내 중점 관광·레저시설(관람시설, 야영장, 레포츠, 골프장 시설 등)로 개발된다.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2007년 12월에 세계 굴지의 조선건조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주)을 포함한 8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주) 등이 입주해 고부가가치 조선산업, 조선기자재 산업 단지로 조성되어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송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의 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진주 소재의 대경건설(주)과 울산 소재인 (주)대광종합건설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대송산업개발(주)을 선정하여 2007년 8월에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대송산업단지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배후기능을 가진 산업단지로서의 개발을 위해 기존의 3단계(2020년) 사업을 1단계(2012년) 사업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두우레저단지

2013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모집계획(공모지침) 공고를 실시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4년 상반기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덕천에코시티는 주거, 상업, 산업연구시설이 조성되어 쾌적한 생활공간의 혁신형 복합거주단지로 선보이게 될 것이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오익현 호남권지역본부장(GFEZ 투자유치 자문위원)



## 오 익 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지역본부장

**Q** 근무하고 계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어떤 곳인가요?

**A**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계,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지원 연구기관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용화중심 생산 기술을 개발해 기업 현장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국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의 근간이 되는 청정생산시스템 분야, 국가 주력 산업의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뿌리산업기술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융·복합 기술분야 등 3대 중점 연구 영역으로 전국적인 지역 기술 지원 조직을 구축해 20여 년간 축적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성장주도 산업과 지역 특화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지역본부에서는 동력부품소재기술, 광에너지융합기술, 나노융합디스플레이 / 조명기술, IT융합농기계시스템기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방문 하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A**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왕성한 활동으로 해외투자도 많이 유치하신거 같고, 또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지역이 산업·물류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계적인 거점으로 발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노력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가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을 기대하며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Q** 우리청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우수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A**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광양경제청은 특히 경제자유구역중에서도 항만, 철도,

항공 등 물류인프라는 상위 수준이나 R&D를 통한 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선,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지역이 필요한 분야를 분석한 후 지자체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기업지원 기관들의 유치에도 노력하고 기존 기관이나 대학과 기업의 연계 활용이 잘 되도록 기업지원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인프라의 장점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업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이 지역을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Q**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있는 기업 또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A** 기술이 기업의 근간이겠지만 기술의 '질'보다 중요한 것이 '경쟁력'과 '경제성',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융복합, 친환경 등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저급(로우)나 중급(미디엄) 기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장에 '먹히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광양만권에는 소재관련 기업과 산업단지가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오염과 관련한 제약 조건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사례를 보면 에코-마그네슘을 개발하여 기존 합금의 단점인 산화와 발화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마그네슘은 공정 중 산화와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육불화황(SF6), 이산화황(SO2) 등 보호가스가 사용됐습니다. SF6은 온실가스로 분류돼 선진국에선 사용이 제한되고, SO2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로 철제 장비를 부식시켜 장비 수명을 단축 시킵니다.

친환경적인 소재기술로 강도와 신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제조단가는 60%에 불과하여 현재 이 소재는 LG 전자 휴대폰, 현대자동차 범퍼와 시트레일, 포스코, 미국 GM, 보잉사의 항공기 등 적용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처럼 '마른수건 비틀어짜기'와 같은 접근방식이 아닌 차별화된 접근으로 환경과 고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였습니다.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지금 기준치에 맞추려는 노력보다 차별화된 접근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청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A**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R&D 역량만으로는 대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에 기술혁신 기관들을 추가로 유치하거나 기존에 위치한 대학이나 연구소들과 기업이 활발히 연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 철도, 항만 등 광양만권이 보유한 우수한 교통 인프라들이 인근 산단과 활발히 연계되어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역대 청장, 본부장 초청 GFEZ 발전 현황 설명  
(2013.08.01)



GFEZ, 조합회의 임시회 (제61회) 개최  
(2013.07.30)



광양항 Maersk社 'Triple-E' 신규 기항식  
(2013.07.18)



2014년도 신규시책 보고회  
(2013.07.09)



7월 중 열린회의  
(2013.07.08)



GFEZ, 간부공무원 특강  
(2013.07.03)



GFEZ, 중국 대련시 청년연합회 방문  
(2013.06.19)



투자유치 전문가 초청, 광양만권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2013.06.18)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홍보관 견학 예약신청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홍보관 견학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 등을 홍보관에 초청하여 그 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의 개발 성과와 현황, 미래 비전 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 GFEZ 홍보관 견학 예약신청서 >>

| 구 분         |       | 내 용             | 비 고 |
|-------------|-------|-----------------|-----|
| 방문 단체명      |       |                 |     |
| 견학일자        |       | 년 월 일 : 시 ~ : 시 |     |
| 견학내용        |       |                 |     |
| 방문인원 (대표자명) |       |                 |     |
| 신청자<br>연락처  | 성 명   |                 |     |
|             | 일반전화  |                 |     |
|             | 휴대전화  |                 |     |
|             | 이 메 일 |                 |     |
|             | 주 소   |                 |     |
| 기 타         |       |                 |     |

2013 년 월 일

신청인 : (서 명)

※ 홍보관 견학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61-760-5702) 또는 이메일(suejhun@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담당관실 [전화:061-760-5091/3](tel:061-760-5091), [팩스:061-760-5702](tel:061-760-5702)

생태와 문화 체험의 장!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SUNCHEON BAY KOREA 2013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4. 20 ~ 10. 20 / 순천만일원



---

발행일 2013년 08월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인 이 희 봉  
<http://www.gfez.go.kr>

---